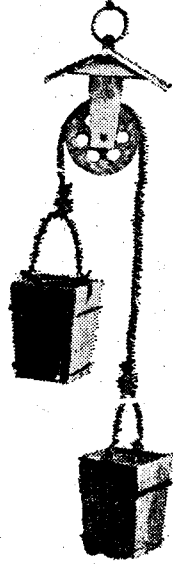


食品工業의 實像과 施策



尹

泰

葉

(全經聯專務理事)

1. 國際競爭과 國民食生活改善

2次大戰後에 다른 成功한 開途國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나라 經濟開發政策은 「先工業·後農業」의 開發順位에 의한 1·2·3次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행하였고 4차 5개년계획 또한 그러한 大方向 밑에서 지금 曠野의 이해를 經過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輸出增進을 止상과제로 삼아온 過去 15年間(1·2·3次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이 있었지만 앞으로 5년간에 더욱 該해야할 理由는 借款등의 外資導入을 壓縮하려는 政策과 直結된다.

이래서 輸出增進을 위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力을 총동원 하여야만 하게 되었다. 該加工食品은 앞으로 4차 5개년계획기간에 比약적 수출증대가 可期되는 것에 속한다.

그같은 期待의 뒷받침은 첫째로 別項으로 알 수 있듯이 高度伸張의 過程에 있고 둘째로 東南亞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中東, 南美등에 걸쳐 市場이 단시일 동안에 擴大多邊化하였을 뿐만 아니라 各 地域에서 競爭優位를 固히하고 있는 事實들이 그것이다.

그리고 輸出品目이 多樣化되어 있으나 例를 들자면 라면類, 飲料, 調味料등이 市場에서 크게 成果를 올리고 있으며 生資源輸出品인 「穀」같은 것은 實利度 높은 輸出品으로 注目을 끄는 多實績品目이다.

한편 加工食品이 國民食生活을 개선한 實態를 본다면 各 가정의 아침식사를 빵으로 바뀌는 傾向이 近年에 해마다 더욱 顯著해졌고 근무처 附近의 食堂에서 또는 직장의 내부食堂등에서 라면및 기타의 加工食品으로 점심식사를 하는 人들의 數가 急증하여왔다 過去 몇해 동안 導入小麥에 對해서 財政으로 價格補助를

하고 다른 한편 粉食業者에게는 稅制上特惠를 주어 비교적 값싼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였던 정책지원에도 크게 연유하였지만 아무튼 米食一邊倒의 우리 食生活이 經濟的으로 시간적으로 개선되는 실적을 현저하게 나타낸 것은 食生活의 合理化와 食品工業界의 近代化를 뜻하는 것이다.

2. 食品工業界의 實像

國內 食品工業界가 8·15解放 前後만 하더라도 극히 微微한 存在이었다. 그러나 그後 30餘年동안에 어느 業種에 못지않은 文字 그대로의 長足的 발전을 계속하여 公開(株式)企業體가 12個社를 손꼽을 정도인 國內 屈指의 大業種으로서의 地位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더 말할 것도 없이 食品工業 自體가 지니고 있는 人間의 生理的, 經濟的, 社會的인 存在價値에 緣由하는 것이다.

食品工業界는 ① 韓國食品工業協會 傘下の 27個 大메이커를 비롯해서 약 19,000個의 제조, 가공業體(그중의 제조업체가 약 5,000개 이고) ② 300名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한 큰업체만도 약 70개로서 大企業體는 많이 獨寡占 業體에 該當하며 ③ 年間賣上 약 2,000億원, 納稅 약 100億원에 達하고 있는데 작년의 例로 賣上額이 前년에 比해서 30%이상 激增하였다. 따라서 그에 準한 納稅額의 急增으로 業界의 財政에의 寄與度가 加速의 上昇을 하고 있고 ④ 輸出도 매년 70~100%의 大幅 增加를 보이고 있는데 가까운 年度의 실적으로서 75年의 6천만달러가 76年에는 1억달러로 증가하였다.

작년의 전체 수출증가율이 50%이었던 것과 비교해 불배 食工品의 70% 增加가 異例의 高率임을 알 수 있다.

3. 輸出과 內需의 複合役

商品에 따라서 ① 輸出品으로 적극 밀고 나가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② 內需品으로 有望한 것이 있다. ③ 또 輸出品으로 그리고 內需品으로 必要不可缺하여 과감성 있게 政策의 育成을 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도 있다. 그런데 加工食品은 그 最後者에 屬한다. 왜냐하면 加工食品에 輸出規模는 아직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輸出 伸張율이 例外的으로 높다.

또 別項으로 言及하려니와 輸出市場이 급속도로 多邊化되어 가는 등 實利 많은 輸出이기 때문이다.

한편 內需로서의 加工食品의 重要性을 본다면 첫째로 年間 300萬톤 규모의 糧穀導入을 하여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價格이 比較的 싼 小麥을 導入하여 食品으로 加工하는 것이 外貨 節約의 方途이다.

더구나 米·麥의 自給自足 목표에 이른 단계에서는 보리 이외의 잡곡을 수입하게 마련인데 잡곡중에서는 小麥을 택하는 것이 어느모로 보나 당연한 일이다.

뿐더러 쌀 自給이 불가능 하였던 단계에 粉食장려를 政策이 즐기차게 밀고나간 결과로 國民의 食生活개선이 크게 촉진된 別項의 사실에 想到한다면 內需用 小麥輸入의 意義를 切感할 수 있다.

4. 政策으로 育成되어야 할 食品工業

① 美·日·西獨 등 3大 經濟強國을 비롯한 主要 各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合理線 모색 ② 인플레이의 再襲防止 ③ 失業對策 ④ 國際收支 不均衡 등(특히 開途國)의 4大難題를 안고

있는 77년의 國際경제가 4개월을 경과하는 동안 경기부양책에는 美國만이 그런대로의 熱意를 보여왔으나 日本은 微溫의이다. 더구나 西獨은 인플레이의 걱정이 깊다고 하여 束手無策상태이다. 그리고 主要先進國에서 慎重한 通貨政策을 持續하고 있는 것이 主因이 되어 인플레이의 急上昇은 防止되었고 失業率의 減少가 期待와 어긋나고 있는 것은 각국의 企業界가 例外없이 經營合理化에 注力하고 景氣前途가 不透明하다는 共通된 展望에 얽매어 施設投資에 소극적인 때문이다. 한편 國際收支 不均衡 豫想은 굳어질 정도이다. 「카트」의 「世界貿易豫備評價」만 하더라도 77年度の 세계貿易 展望에는 말 끝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즉 昨年度의 세계무역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11%가 증가하여 과거의 최고 기록이었던 74年 보다도 4%증가되었으며 金額으로 12%가 많아진 총 8,800億弗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77年度 세계무역 전망으로 「鈍化되기는 하겠지만 伸張은 할 것」이라고 하는 以上の 具體的인 言及은 避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 食糧의 국제시세가 비싸지고 이에 따라서 세계물가가 예상외로 많이 오를 조짐이 지난 수개월동안 계속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美國의 食糧生産이 주로 작년 여름의 旱魃과 겨울의 酷寒등을 입었음에 연유하였다. 하기는 금년 1月 1일부터의 油類引上이란 국제物價 상승요인도 없지 않았지만 食糧시세가 油價영향에 앞서서 올랐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새삼 痛感하게 되는 것이 食糧대책의 重要性이다. 食糧의 生理的 脆弱點이 氣候란 自然의 偉力(威力) 앞에서는 悲慘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食糧은 季節作物이므로 多耗作(벼농사의 경우 등도)에 限界가 있고 耕地擴大·肥料·農藥·種子改良 등등의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고 해도 세계 人口증가에 따른 需要增加를 「카버」할 만큼의 食糧增産은 不可能하게 될 날이 과히 멀지않은 장래의 일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도 않다.

따라서 食糧의 節約과 製品管理의 容易性을 모든 內包要因化되고 있는 食品工業의 育成 문제가 重要性을 띠게 마련이다. 그런데 意外의 사실로서 우리나라 食品工業界는 아직도 政策的인 育成面에서 疎外當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더우기 一部 政策수립가들로 부터는 食品工業이 消費産業이 되기까지 한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일이다.

食糧의 對外依存도가 높은 우리는 남달리 적극적인 식량절약을 하여야하고 그러자면 食品工業의 育成으로 乘數의 效果를 노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食品工業이 資金과 稅制의 兩面에서 모두 政策支援의 圈外存在라고 하는 것은 理由所在에 理解가 잘 가지 않는다. 輸出産業·重化學工業·中小企業 育成등에 政策感覺이 集中된 나머지 施策不調和라면 이는 是正돼야 할 것이고 그 是正은 빠를 수록 좋다. 왜냐하면 食糧절약을 遷延시켜서 得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끝으로 附言하자면 食糧의 短點(需要彈力의 低水準)을 勘案하여 食工品으로 「事故需要」에 對備하는 適正線設定이 바람직하다. 그 資金은 基金制가 理想的이나 우선 調達購買에 의하는 것이 어떠할까 한다.

5. 經營哲學을 바탕으로

지난 62年 1次 經濟開發 5개년계획이 實施되기 시작한 後 15년 남짓한 동안에 加速的으로 發展의 激變을 가져온 經濟部門의 實態에 比해서는 食生活의 개선이 아직 너무도 뒤떨

어져 있다는 말을 흔히 듣게 된다.

하기는 經濟의 前進에 겨누어서 進度가 緩慢한 것은 비단 食生活개선 뿐만이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食生活개선 문제만을 말하기로 한다. 하기는 別項으로 言及한 바와같이 쌀·보리등 主穀消費가 줄고 밀가루와 라면 肉類 등의 消費가 相對的으로 늘어난 食類의 消費分析 結果가 말해주듯이 우리나라의 국민食生活이 개선되기 시작한 것만은 罔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文字 그대로 겨우 개선의 단계에 들어섰을뿐, 바람직한 改善상태에 到達하자면 아직 前途요원 하다는 感이 깊다. 例를 들자면 근년에 아찔식사를 糧식으로 移行한 食生活改善家庭이 漸增되어 오기는 하였지만 全體家庭에 대한 糧食家庭의 比率은 실로 微微한 存在인 것이다.

앞으로 國民食生活 改善을 促進시키는데 있어서는 ① 國民의 所得增大 ② 施策面에서의 助長(쌀과 보리등 主穀의 自給自足이 成就되었다고 해서 粉食獎勵政策을 後退시키는 것도 性急한 시책전환) ③ 技術의 向上(導入技術을 包含)과 施設의 近代化등등 모두 必要치 않은 것이 없지만 經營哲學이 그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① 당국의 支援을 얻기 위한 方便으로 ② 또 감독당국의 단속을 피하는 先手로 ③ 기업倫理를 추구하는 社會적 요구에 對해서 「作心三日格」의 經營자세등 일대는 社會적으로 莫重한 食品工業人으로서의 使命을 다할 수가 없다. 生産의 經營者, 管理층 및 販賣分野에 걸친 10萬食工人들은 各其의 立場에서 急速度로 加重된 「國民食生活의 一翼을 擔當하고 있는 責任感」에 透徹해야 하겠다. 더우기 最高經營者는 最終的인 意思決定者로서의 哲學的 經營姿勢를 굳건히 定立해야 한다.

① 企業의 社會的 責任이 이러한 姿勢에서

는 自動的으로 生成하고 ② 企業의 專門化 系列化가 圓滑하게 이루어 지며 ③ 業者間의 過當競爭(특히 輸出商品의 경우는 國家的 損失)의 止揚이 可能해지고 ④ 이른바 「人格販賣」가 마아케팅의 분야에서는 어렵지 않게 體質化 된다.

생각하면 企業의 最初最終의 目的이 利潤追求에 있고 그 目的達成을 위해서는 手段方法이 가려지지 않았던 眞 歷史는 大體로 終焉을 告하고 모든 企業人이 時代的 責任感과 더불어 살아야 하게 되었다. 이는 또 모든 自由經濟國에서의 共通되는 課題이다.

6. 空轉상태였던 不正食品團束

保社部는 昨年 7月부터 有害食品에 대해 關係部處와의 合同으로 전국적인 단속을 強行하였거니와 과거를 토대로해서 今年에는 「年中團束」의 체제를 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올해 有害食品단속의 基本방향은 ① 전국 5천여개의 有許可 食品제조업소의 生産過程검검 ② 有害食品의 潛在的 요인의 除去 ③ 流通食品의 수거검사를 통한 安全度改善등으로 要約된다.

그 단속조직은 대책본부의 단속부가 監시와 단속기능을 담당하되 보사, 내무, 농수산부와 國세청, 수산청등 關係부처의 실무국장으로서 대책위원회를 구성, 단속업무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또 단속만 아래 5~10個의 기동대를 편성하고 수거한 제품의 검사는 철저히 하게 되는데 특히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다는 것이다. 有害食品이 國民保健을 적지않게 威脅하고 있는 現段階이니 만치 그 成果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한 나머지 단속활동의 重點이 빛나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指摘해 두고 싶다.